

대행 스님

용도대로 자가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OO 선생님과 OO 보살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회장님들, 여러 신도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지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 겸 또 설법이라기보다도 우리 생활에서 그 뜻을 한데 모아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젊으나 늙으나 다 내 몸 하나를 끌고 가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문제에 의해서 내 가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사회, 아니 국가…. 우리는 국가를 등지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국가를 두면서 항상 여념이 없이 부지런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 가정을 이끌고 가는 데는 내가 나를 알아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80%, 9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항상 이 세상의 노예처럼 또는 습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게 아닙니다. 그 화두 받는 것도 옛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공이 없이 뛰어야 하고 시공이 없이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끌고 가는 데 그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는 어떠한 점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하죠. 미생물로서 태어났다고 볼 때 그럼 그것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서 바로 나투면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하게 되느냐? 그 씨 심었으면 그 씨대로 또 태어나야 할 텐데 왜 그 씨대로 태어나질 않고 자꾸 모습이 바뀌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생명들은 즐거우나 고가 닥치나 항상 이런 것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는 반면에 사람은 차원이 높아지고 바로 진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진화력.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멍을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는다 이 소립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자기를,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좇아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마음은 바로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다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수천수만 가지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차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업보도 윤회도 인과응보도 거기서 모두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치열한 개발에, 치열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 동물로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라고 표현합시다. 잠재의식 속의 그 카세트에 수억겁에 거쳐서 감기고 감기고 또 감기고, 그 얽히고설키고 한 업보와 또는 인과응보와 유전성과 모든 것이 거기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보에 의해서 또는 인과응보 유전성에 의해서 병고도 가난도 모두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감독한테 대사나 모든 걸 받아서 각본대로 영화를 하듯이.

그런데 불법에는 팔자 운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 지금 아까 내 몸 하나 끌고 가는 데도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야만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설킨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는 그 모든 걸 녹여야 된다 이 소립니다. 녹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망상을 끊어라." 이럽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바로 인과의 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망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님을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습을, 그 살아나오던 악하고 선한 습을,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모든 걸 그 자리에 다 다시 놓는다면,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카세트에다 노래를 넣어 놓고 카세트에다 (녹음 안됨) … 한 것을 그대로, 그것은 고마운 것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나를 다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거를 주는 것이다.'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건 스스로 잘돼. 여러분이 그것을 지엄해서 실천적으로 생활에서 해 보신다면 그것이 납득이 될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대장 소장이나 이자나 방광이나 어느 부분을 막론해 놓고 모든 생명들이 일차 이차 삼차 사차 오차까지, 뼈의 세포까지 생명체들이 전부 얼개미 같은 그런 법망을 쫓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그 생명들은 어디를 따르느냐? 내 한생각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옛날의 태초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그 뜻, 한 점의 마음에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생각에 의해서 주인공에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대로 되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인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